**치유와 화해로 가는 여정에서 (눅 24:13-36)**

**1.**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더 큰 이야기 속에 어떻게 위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실망한 두 제자와 나란히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눈을 여셨는가에 관한 이 감동적인 기록은 지난 수많은 세대의 신자들에게 영감과 소망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엠마오에서 제자들과 한 상에 둘러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많은 예술작품들이 그분이 빵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인식된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밝히거나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관계를 재정립하고, 신뢰의 끈을 확인하며, 상처 난 마음을 만지고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엠마오 이야기는 화해의 영성과 화해의 사역에 관한 중요한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이야기는 ‘나란히 함께 걷기’, 즉 동행하는 지도력의 좋은 본보기요, ‘관점의 변화’를 통해 ‘믿음에 이르게 됨’을 경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여정은 어딘가에 이르기 위한 여정이라기보다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여정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벗어났고,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여정은 환멸과 실망을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는 그들의 진술 속에서 그들의 소망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여정 가운데 낯선 행인 하나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매우 다정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인간성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낯선 행인에게 환대를 제안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각성의 순간이 찾아오고, 그들은 변화됩니다. 흥분과 소망, 그리고 새로운 목적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이제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갑니다.

치유와 화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들은 종종 이 제자들의 엠마오 여정과 흡사해 보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는 대체로 과거의 고통을 피해 달아나려 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2.**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그 제자들과 동행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시 말해야 하고, 그 결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침내) 그들 자신의 인생 이야기 속에 통합됩니다. 실망스런 결과로 끝난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이제 부담스런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한 낯선 행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길에서 그 제자들을 앞질러 가다가, 곧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여정에 동행합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의 목회적 실천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강한 이미지로 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앞서 걸어가기보다 그들 옆에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안전과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 낯선 행인은 그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걸을 때, 그 낯선 행인은 주의 깊게, 그리고 동정 어린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낯선 행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에 관한 그 장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자신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가의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의 새로운 관점이 등장할 때까지 거듭 다시 들려집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진정한 결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점의 변화는 언제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것은 일어난 사건의 비중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그 이야기가 새로운 곳을 향하게 합니다. 그 낯선 행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관점의 변화를 드러냈을 때, 제자들이 부담으로 갖고 있던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던 역사적 사실에 감추어진 진정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관점을 새롭게 정립하고 다른 방향을 향해 움직이라는 부르심이며, 동시에 새로운 어떤 일을 맡아 수행하라는 위임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새로운 관점의 발견은 우리 위에 은혜가 임하듯 어느 순간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유되고 화해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난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 화해의 순간에 얻어진 관점이야말로, 사실상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관점입니다.

**3**

엠마오 이야기 속의 낯선 행인은 제자들이 안전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신뢰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창조합니다. 환대의 공간 하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연속적인 사랑의 관계의 순환 속에서, 기억을 부드럽게 펼쳐내고, 상처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억들은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의 상당 부분을 구성합니다. 사랑의 관계의 순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슬픔 안에 있는 아픈 기억들은 다시 되새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 고통과 슬픔의 삶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며 사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말하고 또 다시 말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곧 기억에 대한 치유와 화해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통의 잔은 희망의 잔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인 변화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을 통해 바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변화는 그 낯선 행인이 이어서 다른 행위를 했을 때, 즉 그가 축사하고 빵을 떼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엠마오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실 때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제자들이 그 낯선 행인에게 그들과 함께 머물며 식사하자고 초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대는 (지금 여기서) 치유와 화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암시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낯선 행인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간성에는 이미 무언가가 새롭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듣는 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타인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며, 사랑의 관계가 다시 한번 형성되는 것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낯선 행인은 이 여정의 끝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빵을 들어 축사하고 떼어 나눔으로써 그들은 새롭게 다시 연결됩니다. 공생애 기간 중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을 모이게 하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과 화해하십니다. 바로 그 빵을 떼는 행위가 깨달음의 순간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침내 그들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에게서 어떤 죽은 친구가 아닌, 살아 있는 낯선 행인을 발견할 때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모든 현현 기사 속에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곧바로 인식되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우선) 치유와 화해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치유와 화해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순간은 바로 은총의 순간입니다.

새롭게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순간은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는 순간이며, 또한 미로처럼 얽힌 죽음의 고통에 관한 기억과 아픈 마음과 이야기들로부터 빠져나가는 새로운 길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4**

믿는다는 것 혹은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신뢰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신뢰, 곧 다른 존재를 믿으려는 모험은 인간의 삶에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불러일으켜진 이 신뢰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다 깊이, 또한 보다 온전히 ‘인간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타인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분의 현존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변혁의 경험입니다.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다시 그들과 함께 먹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22:15). (그러므로) 엠마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빵을 나누었다는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만찬은 주님의 현존과 부재를 동시에 드러내는 실존적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과거가 그들에게 현존하고, 또한 그들의 시야가 (주님을 다시 만날) 미래를 지향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 위해 그들은 어둠을 뚫고 걸음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치유와 화해의 과정이 낙심한 사람을 진리가 통치할 새로운 창조세계를 향해 움직이게 합니다. 엠마오 이야기에서, 전에 제자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예수가 그들이 바랐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는 바로 그 구원자였습니다. 이 참다운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들은 진리를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낯선 행인에게 환대를 제안한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금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종교계와 정치계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선교에 뒤집어 씌우려 했던 그 거짓말에 더 이상 주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해의 과정 속에서 진리는 정의가 거의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마도 진리는 죽은 자에게 부여되는 유일한 정의일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보헤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프로테스탄스 운동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 얀 후스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매우 분명합니다. 화형장에서 얀 후스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펼치며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는 부르짖습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마지막 순간, 황실 집행관 폰 파펜하임이 후스를 회유합니다. 그의 주장을 철회하고 목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스는 그 요구를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고발하는 내용들을 내가 결코 전파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거룩한 선생들의 말씀과 권위에 의지해 그 동안 저술하고, 가르치고, 전했던 그 동일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위해)나는 오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곧 화형에 처해졌고, 그의 재는 라인강에 뿌려졌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목적은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 항상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치유와 화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와 화해의 성취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는 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던 수의와 모든 민족들을 가리고 있던 덮개를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없애시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를 제거하시므로 죽음을 영원히 삼켜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와 형제된 여러분! 그러므로 치유와 화해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소망 중에 기뻐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합시다.